

동학에서 오월정신까지 이어지는 '시천여민'

광주시립미술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특별전

한국의 조각가 구본주의 작품 '갑오농민전쟁'은 척박하게 영위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직설적으로 빚어낸 걸작이다. 손보다 큰 발로 땅을 옥죄어 수평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근육과 뼈가 결마다 살아 있어 따지고 보면 비현실적인 형상이지만, 매서운 눈빛으로 하늘을 향해 대나무 창을 든 모습은 곧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감상을 이끈다. 이 작품은 지난 2003년 서른일곱의 나이로 요절한 작가의 불꽃 같은 예술혼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동학의 인내천 사상에서 출발한 시대사 인식을 품고 있으며 광주시립미술관이 오는 12월 1일까지 선보이는 전시 '시천여민(侍天與民)'의 정체성을 압축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다. 본관 로비부터 제1·2전시실, 어린이갤러리까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노래하는 아시아권 작가 45인의 작품 100여 점을 대규모로 선보인다. 구본주의 조각처럼 강렬하게 역사를 직시하는 작품부터 현대사회의 가치를 은유하는 작품까지 다채롭다. 특히 한국 근대사의 분기점을 이룬 동학농민혁명 130주년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 '동학에서 오월로' 나

민주·인권·평화 주제 예술혼 발취 민중미술 작가 아시아권 45인 참여 '동학&오월 아카이브' 등 4개 섹션 투쟁적 역사부터 동시대 갈등 직시

아가고자 한다.

전시 제목인 '시천여민'은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과 '여민주공동체(與民主共同體)'를 축약한 것이다. 전자는 '하느님을 모시고 조화 세상을 열어간다'는 동학의 시천주 주문의 구절이며, 후자는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뤄나간다'는 뜻으로 오월정신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전시는 동학과 오월의 스토리를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정신적 가치가 계승된 맥락으로 인식한다. 나아가 동시대 반복되는 갈등과 혼란 속 전지구적 보편가치로 제시한다.

첫 번째 섹션은 '동학 & 오월 아카이브'로, 동학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다.



김화순 작 '오월 그날'.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두 번째 섹션의 주제는 '시천주조화정'이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모든 사람은 제 안에 우주생명을 모시고 있으며, 그 자체가 곧 우주생명임을 뜻

다. 따라서 '시천주조화정'은 우주생명 그 자체인 모든 사람을 서로 존중할 때 조화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섹션에서는 동학의 시천주 정신을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재확인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담긴 민중의 염원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세 번째 섹션 주제는 '여민주공동체'다.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결집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맞서 비상계엄 해제 및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개인의 희생이 곧 공동체의 삶을 몸소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 섹션에서는 80년 광주의 역사적 유훈인 공동체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광주정신으로 계승한다.

어린이갤러리에서 선보이는 마지막 섹션은 '못살음의 누리'로 동학의 삼경사상에서 착안한 주제다. 동학의 2대 교조 해월 최시형은 우주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하늘과 사람, 그리고 만물을 공경하는 마음이라 하였다. 이는 인간과 비인간의 평등을 인지함으로써 만유의 상생과 조화를 지향하는 우주적 삶의 모습이다. 이 섹션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못생명의 공생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며, 자기돌봄에서 타자돌봄으로, 더 나아가 지구돌봄으로 확장되는 동학의 정신적 가치를 현재와 미래 담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비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구르구르'의 모험

ACC재단 '개굴개굴 고래고래' 내달 12일부터 어린이극장서

"개구리 '구르구르'와 함께 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고래선생님을 찾아 떠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매주 주말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개굴개굴 고래고래'를 선보인다.

ACC 창작작 어린이공연 '개굴개굴 고래고래'는 베트남 전래동화 '개구리가 울면 왜 비가 내릴까?'를 바탕으로 제작된 어린이 연극이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비의 비밀을 아는 고래 선생님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개구리 '구르구르'의 이야기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자연과 물에 대한 소중함을 다루고 있다.

공연은 신비로운 그림자와 개성 넘치는 인형, 음악 등이 어우러져 어린이들에게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 현실 문제를 재미있고 쉽게 전달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매주 주말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개굴개굴 고래고래' 공연을 선보인다. ACC재단 제공

교훈적인 내용을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보여주는 이 작품은 2020년 ACC 어린이극장 초연 이후 2021년 춘천인형극제 대상 수상에 이어 2022년 아시테지 겨울축제에 초청받는 등 대중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개굴개굴 고래고래'는 10월 12~13일, 10월 19~20일 총 6회 공연되며, 관람료는 1만5000원이다.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예매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재조명' 학술대회

26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충효동 발굴 미공개 도편 공개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지역 주요 도자사적지인 충효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재조명' 학술대회를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1부 '광주 충효동 가마터 운영과 현재', 2부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의 특징'으로 구성된다.

먼저 개회사 이후 강경숙 충북대학교 교수가 △광주 충효동 발굴의 60년 귀적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1부에서는 △광주 충효동 가마의 운영 시기 △소비유적 출토 충효동 분청사기 일고찰 △광주 충효동 요지 정책현황 및 정비과제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광주 충효동 출토 명문 분청사기의 특징과 의미(공남용 명문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15세기 충효동 분청사기와 조선 왕실과의 관계 △광주 충효

동 출토 분청사기 제기의 출토 현황과 성격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학술대회에는 국사유산청, 명지대학교,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부산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고려청자박물관 등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이 총출동 한다.

이날 광주 충효동에서 발굴된 미공개 도편을 오전 10시부터 국립광주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 볼 수 있도록 특별 공개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학술대회 연구 성과를 보완해 올해 12월 중 학술총서(통권 제 2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춘향가·적벽가·수궁가... 2024 판소리 감상회

25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창극단은 기획공연 판소리 감상회를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판소리감상회는 2022년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선보인 기획공연으로 소리꾼의 소리와 고수의 북장단을 통해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다. 2024년 판소리감상회는 창극단 창작부 단원들이 참여한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이미소(창악부 상임단원) 소리꾼의 춘향가로 시작된다. 김세종제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은 한양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몽룡과 그를 기다려야 하는 성춘향의 절절한 이별 장면을 그려낸 대목으로 강산제 특유의 애절한 맛을 담고 있다. 김세종제 춘향가는 옛 명창들의 더늠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 사설이나 음악의 짜임새가 고풍스러우면서도 아름답고, 예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번째 무대는 정동렬(창악부 상임단원) 소리꾼의 적벽가 중 삼고초려 대목을 감상할 수 있다. 적벽가는 현존하는 판소리 중 가장 남성적인 소리로 우주 중심의 음악 구성이 남성의 강력한 힘과 고도의 공력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엔 선보이는 송관 박봉술제 적벽가는 우주 위주로 당당하고 진중한 대목이 많고 잔기교가 통하지 않는 담백한 고제이다.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의 영웅적 면모가 진양조장단으로 묘사되며 '삼고초려'가 시작되는데, 다혈질인 장비의 화내는 모습이 종종모리장단으로 박진감 있게 묘사됨으로써 긴장감이 배가된다. 이어 유비가 공명을 설득하는 장면에서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영웅의 비장함이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삼고초려'



광주시립창극단이 오는 25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판소리 감상회를 연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대목은 장중하면서도 비장미가 강하게 표출되는 감정이 눈길을 끈다.

세 번째 무대는 이서희(창악부 상임단원) 소리꾼의 단가 사철가와 수궁가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이다. 미산제 수궁가는 동편제 계보이지만 계면조의 창법, 애원조의 성음 등 서편제의 특징이 조화를 이루며, 상·하청을 넘나드는 음과 화려한 시김새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은 강자와 약자인 용왕과 토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재치 있게 그려내 '수궁가'에 담긴 해학과 풍자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장면이다.

이날 공연은 도경한(기악부 상임단원) 고수의 북장단으로 감상할 수 있다.

올해 판소리감상회는 지난 3월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총 5회 진행된다. 티켓은 전석 1만원으로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